

서울샘터 교회

2019년 10월 27일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
교회력(다해), 전체 48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아홉째 주일**

☞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와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을 2:32).



마틴 루터가 활동한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당 내부 모습이다. 원래 성당이었다가 루터 이후로 개신교회 건물이 되었다. 중앙 오른편 벽면에 루터가 설교하던 설교단이 보인다. 특이하게도 지붕이 달렸다. 사진: 정용섭 목사.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시간은 왜 과거로는 흐르지 않고 미래로만 흐를까요. 연기로 사라지고 재만 남은 소나무는 왜 원상으로 복구가 안 될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은 언제 계획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비밀로 가득합니다. 그 비밀의 원천은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25장 (면류관 벗어서)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창조절 아홉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리는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2천 년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공동체의 전통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역사의 신비 앞에서/ 한편으로 두렵고 다른 한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라 믿기에/ 우리는 이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에 집중하며/ 매일의 삶을 영적 깊이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꾸준히 개혁의 길을 갔던 종교개혁자들의 각성과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구호로 머물지 않고/ 실제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능력으로 자리 잡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더 나아가 교회의 단일성과 사도성과 거룩성과 보편성을/ 교회의 고유한 특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7장(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 다 함께



거룩 거룩 거룩 하시다 온 - 누리의 주하 나님

예 배 처 소
공 동 예 배
간 식 / 친 교
교 우 모 임
목 사
홈 페 이 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o/churchs>

이번주는
2층 세미나 1실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겨를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일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내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리라는 확신과 착각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을 왜곡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주여, 우리를 용서해주소서.

목사: 한반도의 오랜 분단으로 인해서 정의와 평화의 질서도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된 한국교회는 이런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일에 관심과 의지를 포기한 채 각자도생에 치우쳤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 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 그리고 교회의 2천 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더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웃의 잘못도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게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51장 (아름다워라) ... 다 함께

M. D. Babcock

이은영

느린 곳거리

1. 아 - 름 다 - 워 라 주 님 의 세 - 계 는 -
2. 아 - 름 다 - 워 라 주 님 의 세 - 계 는 -
3. 아 - 름 다 - 워 라 주 님 의 세 - 계 는 -

솔 - 로 몬 의 옷 보 다 더 고 - 운 백 - 합 화
아 - 침 해 와 저 녀 들 밤 하 - 늘 빛 - 난 별
저 산 에 부 는 바 람 과 잔 잔 - 한 시 - 냇 물

주 찬 송 하 는 듯 저 맑 은 새 소 리
망 망 한 바 다 와 들 푸 른 봉 우 리
그 소 리 가 운 데 주 음 성 들 리 니

내 - 아 버 - 지 지 으 신 그 숨 쉴 깊 - 도 다
주 - 하 나 - 님 큰 광 을 잘 드 러 내 - 도 다
주 - 하 나 - 님 큰 뜻 을 내 알 듯 하 - 도 다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을 외면하게 하는 소리에 길든 우리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요엘 2: 23-32 ... 윤동희 집사

성서교독 시편 65: 1-13(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 함께

시온에서 우리모두 주를 찬양 하리이다 우리드린 모든서원 지키려고 하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때 들으시는 주님이여 몸을 가진 모든사람 주님앞에 나오리다
사람마다 지은죄를 감당하기 어려우나 우리주님 사랑으로 모든죄악 씻으리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의물에 머무는이 주님전에 머물러서 복 누리며 만족하리
구원의주 하나님이 정의평화 펼치시니 세상모든 사람들이 주님의지 하오리다
-크신권능 허리에다 질끈동여 매시고서 우리주님 힘을쓰사 산들굴게 세우시고
일렁이는 바닷물결 철령대는 파도소리 소동하는 온민족을 진정시켜 놓으시네
-땅끝사는 사람들도 주의징조 두려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일을 칭송하네
거치른땅 황야에도 푸른초장 뒤덮이니 넓은언덕 작은산이 기쁨으로 단장하네
-목장마다 양떼가득 골짜기마다 열매가득 주님주신 기쁜노래 그치지를 앓습니다

제2독서 디모데후서 4: 6-8, 16-18 ... 윤동희 집사

*제3독서 누가복음 18: 9-14 ... 윤동희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J. = 70

주님말씀 복되어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말씀 사모하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여호와의 날에 구원 얻을 자 ... 박재진 목사

설교후기도 ... 설교자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1,3,4절 ... 다 함께

봉헌과친교예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1절 ... 다 함께

증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송예전

*마침찬송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4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창조절 아홉째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천 년 기독교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예배 후에 반별 공부모임이 있습니다.

- 그리스도교 사상사: 박재진 목사
- 과학과 신앙: 김용성 집사
- 기도와 교제: 오미영 집사
- 청소년 반: 김재남 집사

* 종교개혁 기념 주일- 오늘은 종교개혁 502주년을 기리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자신이 시무하는 비텐베르크 교회당(당시는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신학 논제를 대자보 형식으로 게재했습니다. 교회사 학자들은 그 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정했고,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종교개혁'으로 번역된 reformation은 형태를 재설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형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형태 안에 본질이 담깁니다. 본질과 형태가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는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과 유착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소위 '가나안 교인'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교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 개혁 정신이 살아있는지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난주일 헌금 290,000원

(2019/10/20)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예배준비

	예배일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창조절 9주	10/27	2층 세미나 1실	박재진	운동희	박수진
창조절 10주	11/3	4층 시청각실	이춘우	김용성	윤혜정
창조절 11주	11/10	2층 세미나 2실	정용섭	이유선	오미영
창조절 12주	11/17	4층 시청각실	박재진	신창식	이기령

10월 20일 설교 "갈급한 영혼" 발췌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사실 자체가 바로 원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행위 자체가 구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결속되었으니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설명이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생명을, 또는 인생을 추상적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또는 인생을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인들입니다. 함민복 시인의 시 "사과를 먹으며" 전문을 읽겠습니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사과에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즉 생명의 근원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식 소재로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를 예수의 몸과 피로 믿고 먹습니다. 예수와의 일치 통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신앙입니다. 함민복 시인은 사과 한 개에 은폐된 우주론적인 생명의 깊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실행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과 한 개에도 생각할 내용이 많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생각할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무한에 가깝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생명 구원을 갈망하는 삶이 곧 구원입니다. 그런 영혼의 갈망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원한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정도로 우리 운명을 지배하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가 사과 한 개의 우주론적 차원을 느껴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해도 실제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고, 젊은이들이 할 실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순례자로 사는 인간 모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 어려움마저 없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이자 비현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이 갈급하다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의 문제를 헤쳐나갈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해진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온 과부처럼 한편으로는 갈급한 영혼으로 살고 싶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부로 표상되는 그런 처량한 신세에 떨어지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은 여러분이 알아서 챙기기를 바라고,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원한에 사투친 과부의 신세에 떨어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체 인생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설교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갈급한 영혼으로 살려는) 믿음을 보겠느냐?"